

# “강력한 개혁 통해 새 향군으로 거듭날 것”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김진호

대담 | 안찬희 본지 편집위원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65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 최고 최대의 안보단체다. 그동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있을 때나 안보위기가 있을 때마다 국가안보 제2의 보루로서 중심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왔다. 그럼에도 향군은 지난 2년여 동안 불미스러운 일로 직무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새로운 회장 선출이 지연되면서 심한 내홍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1일 제69차 임시 전국총회를 통해 김진호(전, 합참의장, 예, 육군대장)회장이 제36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빠르게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김 회장은 취임과 함께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해 왔다.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새로운 향군 건설을 위해 군 원로를 포함한 여러 안보단체 회장단과 각계 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향군발전과 개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창설 65주년에 ‘향군의 정체성’과 ‘향군의 다짐’을 재정립하여 선포식을 가졌으며 향군의 안보활동 방향도 3가지로 정해 지침을 내린바 있다.

그 외에도 강도 높은 내부개혁을 통해 새로운 향군으로 거듭나고자 역량 있는 인사들로 ‘향군개선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혁안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군사저널은 지난 1월 18일 성수동 향군타워에서 김진호 회장을 만나 향군의 개혁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취임하신지 6개월을 맞은 소감은 어떠신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6개월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동안 군 원로를 포함한 여러 안보단체 회장단과 각계 전문가 등을 두루 만나 향군발전과 개혁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최대의 안보단체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향군을 올바르게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명감에 하루 일정을 분 단위로 쪼개면서 강행군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향군이 빠른 시일 내에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국가안보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향군회장 취임 첫 일성으로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습니까?

향군은 불행하게도 지난 2년여 동안 전임 회



지난해 12월 15일 국방컨벤션에서 참전 친목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퇴진하고 장기간에 걸쳐 직무대행체제가 이어지고 새로운 회장 선출과정에서 분열과 갈등으로 내홍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11일 제36대 회장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짐에 따라 그동안의 불신과 갈등은 해소되었고 지금은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 이래 1천만 회원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휘서신을 통해 ‘영민여상 동의야가여지사가여지생 이민불외위야(令民與上 同意也 可與之死 可與之生 而民不畏危也)’ 즉 “위와 아래가 같은 생각을 가지면 죽고 사는 것이 두렵지도 무섭지도 않다”라는 손자병법의 한 구절을 강조하며 화합과 단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의원들을 비롯한 회원들도 저의 생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고, 이 때문에 회장에 취임한 지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 향군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들을 완전히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안정을 되찾고 그 어느 때보다도 끈끈하게 뭉쳐 있다고 자부합니다.

## 향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이에 충실해왔다고 보시나요?

우리 향군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 전시군수동원 지원을 위해 설립된 준군사조직으로서 65년의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고 있으

며 재향군인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이렇게 뭉쳐진 단결력을 바탕으로 국가안보와 사회공익에 기여하는데 창설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향군회원의 자격은 군복무를 필한 모든 남녀예비역 장병들로 되어 있으며 조직은 13개 시·도회와 전국 223개의 시·군·구, 3266개의 읍·면·동 조직과 해외 13개국 22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1000만 회원을 보유한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단체입니다

향군은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 사건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창설된 향토예비군의 모체가 되었으며, 북한 무력도발 책동을 분쇄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이 땅의 전쟁을 억제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통일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향군은 창설 목적을 적극 구현함은 물론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향군의 모든 역량을 경주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향군의 국가안보를 위한 지원방향이 너무 지나치게 이념에 치우었다든가 또는 정치적이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향군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위한 정부의 안보정책을 적극 지원하는데 진력할 것이며 필요시 국가안보 관

련 원로 또는 단체들의 안보정책 견해를 수렴하고 정부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해 10월 향군창설 65주년 기념식에서 정체성 선포식을 가졌는데 그 배경과 향후 향군이 나아갈 방향은?

1952년 국가의 전시동원 지원을 위해 창설된 준군사조직의 호국단체인 향군이 세월이 흐르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체성 확립과 향군인의 다짐을 재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회법과 정관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국민들이 바라는 향군상이 어떤 것인가를 심층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최고·최대의 안보단체’라는 정체성과 함께 「향군인의 다짐」을 ▲향군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갖는다. ▲국가안보의 제2보루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대한 일체감을 갖는다. ▲대한민국과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한다. 는 4가지 주제로 개정하고, 지난해 10월31일에 개최된 제65차 향군 창설 기념식을 통해 선포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향군은 이러한 정체성과 향군의 다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새로운 향군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도 안보에는 여와 야, 진보와 보



향군은 창설 65주년을 맞아 정체성 선포식을 가졌다.

수,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향군을 믿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취임 이후 향군개선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개혁과제를 도출했는데 개혁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향군이 지난 10여 년 간 경영부실과 비리로 인해 위상이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저는 강도 높은 내부 개혁을 통해 새로운 향군으로 다시 태어나기위해 전문가들로 향군개선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혁과제를 도출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침체된 전국 조직원의 자긍심을 회복시키고, ▲국가안보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부채를 줄이기 위한 수익 창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실추된 향군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고 재정을 안정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재정을 안정시키려면 부채를 줄이고 재정지

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평균 4.06%에 달하는 금리를 3%대로 낮춘다는 목표로 금융기관과 협조 중에 있습니다. 목표대로 금리가 인하된다면 약 60억 원 정도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채 상황을 위해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별도의 투자가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향군의 조직과 회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단체와 협조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국가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사업, 전역장병 귀농·귀촌사업, 모바일 콘텐츠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인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본회를 비롯하여 직영사업체와 산하업체에 100여 명을 감축할 예정인데 이 경우 연간 43억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총 절감액은 매년 1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회관을 잠실에 위치한 향군타워로 이전함으로써 현재 건물 입주비인 59억 원을 차입금 상황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재임 기간 중 완전한 부채 해결은 어렵겠지만 강한 응집력을 가진 국내 최대의 안보단체라는 자산을 활용하여 부채감소를 위한 수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소멸된

수의계약법 환원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있으며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말해서 6·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 이래 체제불안, 경제난, 국제적 고립이라는 이른바 3중고(重苦)속에서 수백만 명의 아사자를 발생시키면서도, 지난 9월3일 여섯 번째 핵실험을 자행하는 등 오늘날 핵보유국이라는 지위에까지 올라서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그 핵은 우리의 국가와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음을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향군 회장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민족이 공멸할 수 있는 북한 핵은 용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전술 핵 재배치를 포함한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총력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9월12일 서울역 광장에서 북한 핵 개발 규탄대회를 개최했고, 전국의 221개 시·군·구회에서도 각각 개최함으로써 국민들의 안보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향군은 지난해 11월 8일 트럼프 미국대통령 방한 시 대대적인 환영행사를 가졌다.

앞으로 향군은 각급회를 통하여

첫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의 실체, 다시 말해 북한 김정은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은 김일성의 대남적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임을 국민이 올바르게 알도록 계도하고,

둘째, 지구상에서 가장 악랄한 북한군과 맞서 싸우는 우리 군이 사소한 문제로 폄하되거나 불신이 확대되어 기가 꺾이지 않도록 사기 진작은 물론 군을 보호하고 군의 위상을 높이며,

셋째,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 온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도록 국민운동을 전개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고조될수록 공고한 한미동맹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인가요.**

한미동맹은 우리나라 안보의 기반이며 핵심입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미국과의 혈맹관

계가 맺어졌으며 6.25전쟁은 미국과 우방국의 신속한 참전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쟁입니다.

미국은 6.25 전쟁에 연 인원 179만 명의 젊은이들이 이름도 몰랐던 우리나라에 파병되어 함께 전투를 치렀고, 그중 36,940명이 전사하고 9만 2천여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휴전 이후 지금까지 연인원 350만 명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함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6.25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피와 땀과 눈물을 아끼지 않은 혈맹이며 정말 고마운 나라입니다.

이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 강화를 향군 안보 활동의 핵심가치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하여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고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향군

방문과 주한미군과의 친선 및 교류협력 강화를 제의했습니다.

10월 25일에는 한미연합해상훈련을 위해 부산항을 찾은 미국의 핵 추진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방문하여 달튼 함장에게 향군대휘장을 수여하면서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10월 27일에는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 축하만찬에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 한미동맹을 강조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국군 장병들에게 격려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군장병 여러분!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우리가 누리는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훈련과 경계 임무에 매진하는 여러분이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군 생활 이지만 매사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토방위임무 수행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國



김진호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은 지난해 9월 20일 연합사를 방문하여 빈센트 브룩스 사령관과 안보문제를 논의했다.